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가 지난 8월1일 밤 10시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풍산리 제1가나안농군학교내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 시대의 자랑스런 일꾼이자 민족의 예언자였으며 평생을 흠과 더불어 살아온 농민운동의 큰 별이었던 고 일가(一家) 김용기 장로의 장례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민국 농민장으로 엄수되었는데 농군학교 출신 농민, 농협·축협 등 10개 농민단체 대표들과 윤근환 농림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 행정부, 종교, 문화, 교육계와 사회단체 인사 등이 참석,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고인의 유해는 5일 오전 10시 제1가나안농군학교 교정에서 영결식을 거행한 후 이날 오후 강원도 원성군 신태면 용암리 제2가나안농군학교 가족묘지에 안장되었다.

이날 농민장은 조향록 목사의 집례로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조용기 목사의 기도, 북아현교회 여운학

고 김 용 기 | 대한민국 최초로 '농민장'으로 엄수되다

고무신과 작업복 차림으로
평생을 흠과 더불어 살아온
농민운동의 큰 별이었던
고 김용기 장로.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
농민을 일깨워 진정한 '흠'의 의미를
심어주었던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따라보았다.

이 시대의 마지막 상록수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 장례식

취재 / 함경숙 기자

장로의 성경봉독, 장의위원장인 영락교회 한경직 원로목사의 설교가 있었으며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강원룡 목사와 박진환 농협대학장의 조사 순으로 거행되었다.

1909년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에서 출생,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성장한 그는 1931년 고향에 '봉안이상촌'을 건립하면서 본격적인 농촌운동을 시작했다.

해방후에는 한때 사회운동에도 참여했으나 농촌으로 복귀하여 경기도 고양군에 제2개척지 삼각산농장(46년)을, 50년에는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 5만평에 '에덴향(鄉)'을 건설하여 농민운동과 사회개혁운동을 재개했다.

평생의 삶의 터전이었던 가나안농장을 세운 것은 54년.

그후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풍산리에 '농민사관학교'로 불리는 가나



안농군학교를 설립, 책임있는 농민지도자 교육을 위해 힘썼으며, 73년에는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용암리에 제2가나안농군학교와 신림가나안농장 등을 개간하는데 혼신을 쏟아 붓고 끝이 흐르는 '가나안농장' 40여만평을 개척했다.

그의 이런 공로가 널리 알려지면서 66년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리핀의 막사이사이상 사회공익부문상을 비롯하여 73년 새마을훈장 협동장 및 제1회 인촌문화상을 받는 등 각계로부터 5백여차례의 각종 표창, 훈장, 감사패 등을 받았다.

1백60cm가 될까말까한 작은 체구, 굵은 손마디와 손수 고안한 특유의 작업복을 복민복(福民服)이라고 이

름짓고 자랑스럽게 강단에서 농민운동에 일관해 오면서 최근에는 이 농현상을 걱정해 온 '우리 시대의 마지막 상록수' 고 김용기 장로.

평생동안 넥타이를 매지않고 근검한 생활로 일관해 왔는데 필리핀에 막사이사이상을 받으러 갈 때나 훈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들어갈 때도 작업복차림에 고무신을 신었던 그는 54년 가나안농군학교를 창설한 이래 21만명의 농민을 교육, 가난과 싸우는 농군(農軍)으로 무장시켰고 국내의 지식인, 경제인, 정치인, 군인, 학생 등 11만명에 대해서는 농심(農心)을 일궈 나라 사랑, 흙 사랑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그의 유족으로는 3남2녀가 있는데 자녀는 물론 며느리와 사위까지도 그의 뜻을 이어받아 큰아들 종일씨는 제1농군학교 교장, 2남 범일씨는 제2농군학교 교장으로, 3남 평일씨는 제1농군학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 「심은대로 거두리라」, 「운명의 개척자」, 「나의 한 길 60년」 등 10여권이 있다. 한편 정부는 8월2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양계**

